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예고:**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의 소중함, 말씀이 주는 은혜의 풍요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 **기도회:** 3분기 향존 직분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일시: 11월 9일(토) 오후 7시 장소: 교회 유아실
- ◎ **모임:** 각 선교회 10월 정기 월례회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월례회 진행 절차를 간단히 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계획 의논)
- ◎ **총회:** 2014년 교회를 섬길 각 선교회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12월 1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 ◎ **섬김:** 2014년도 교회의 여러 부분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는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교사, 차량안내, 주방 봉사, 인도자, 공동체장, 중보기도자, 예배안내 등)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11월 새벽 기도회 본문

- 1일: 고전 6:1~11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 8일: 고전 9:1~12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 15일: 고전 11:17~26 본질과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 22일: 고전 14:13~25 깨닫고 전하는 말이 더 유익합니다
- 29일: 고전 16:1~12 나눔과 동역으로 세워지는 교회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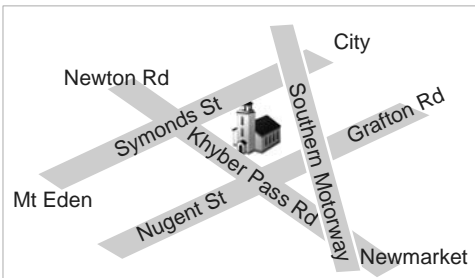
국내 선교
밀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3년 11월 3일

15권 44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2년 반 전을 회상하며

2년 반 전, 저는 갑자기 찾아온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는 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 인생 전부를 바쳤던 삶을 접고 자의가 아닌 어떤 흐름에 의해 새로운 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내, 두 자녀와 함께 부모,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어색한 작별을 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다음날, 우리 가족을 정다운 친구처럼 환영해주는 비를 맞으며 오uckland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갑자기 뉴질랜드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고 계실까?”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에 이곳으로 교육 이주를 오기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으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 그래서 그때는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었고 그러는 사이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이제는 교육 이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 그러나 만약 기회가 온다면 아내와 두 아이만 뉴질랜드에 정착시키고 저는 2, 3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로 남을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 갑작스러운 결정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었고 성취도, 좌절도 있었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느라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른 일도 많았습니. 더욱이 2주 전에 어떤 해프닝에 의하여 저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에 더 가깝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를 성장시킨 생산적인 시간들이었습니.

이 글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제게 또 다른 갑작스러운 결정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평생에 지난 2년 반은 한국에서 겪지 못했던 생활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저는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 기대해봅니다. 여전히 저는 아직 집사보다는 잡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런 글을 쓸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잡사가 아닌 집사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난 잡사나 집사나는 이 질문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계속되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길 소망하며...
- 전인우 집사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송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99:9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19장 다함께
※ 성서교독	52. 시편 119편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69장 다함께
대표기도	김순자권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9:14~20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태한목사
찬송	200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15:00)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권준현 형제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원미경 집사
성경 / 룻 3:14~18
설교 / 침묵 속의 응답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361장
주기도 / 다함께

금주의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성령님의 지혜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각 선교회 총회를 통해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 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교회학교를 섬길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비자와 취직문제, 영육의 연약함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형통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뉴질랜드와 방글라데시를 위해

올바르고 지혜로운 정책으로 치솟는 물가가 안정되고 집값의 거품이 빠져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이슬람화 확대를 요구하는 이슬람교도와 부패에 용감히 맞설 수 있도록.

3. 태국 공동체

장애인 자활사업장 건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갈보리 공동체는 각 나라를 이름으로 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공동체의 나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살피고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일에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갠즈스 강과 브라마푸트라 강의 삼각주와 넓은 침수 지역의 평야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입니다. 전체 종족 집단이 61개지만 벵골(방글라)족이 97%에 달하고 있으며 공용어는 벵골어 수도는 다카입니다.

경제: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인구 과잉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홍수와 태풍이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지독한 가난은 나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주요 외화 수입원은 여러 나라에서 지원하는 원조, 그리고 직물, 의류, 황마, 벵골 인의 송금이며 인구의 55% 이상이 절대 빈곤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치: 24년간 파키스탄의 일부였으나 쓰라린 내전 후 1971년에 독립하였습니다. 정치의 불안정, 암살, 18차례의 쿠데타에 이은 9년 동안의 독재가 1991년 마침내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정치를 주도했던 두 여인의 대립으로 그나마 회복될 기미에 놓였던 민주주의는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연한 부패, 당파,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은 정치와 경제 발전에 방해되고 있으며 그나마 야당은 샤리아법을 요구하는 강한 이슬람교의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교: 1977년~1988년까지는 세속주의 국가였으나 1988년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선포하여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이슬람주의자들의 압력과 소수 인종의 종교 집단에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법 체계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유명무실하며 반대로 이슬람교주의 자들은 강력한 종교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11월 교회일지

월삭 기도회:
11월 1일(금)
향존직분자 기도회:
11월 9일(토)
성서주일:
11월 10일(주일)

◎ 11월 예배봉사회

예배안내 :
최득수/오지영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한상순 집사
다음 주일 1부: 박덕철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11월 13일 수요: 이옥화 집사
11월 13일 애찬: 심창진 목사
11월 17일 1부: 박병민 장로
11월 17일 청년부: 박찬준 형제